

겨우 10살 ...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노엘라 맥마허(10·사진)가 올가을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노엘라 맥마허. 사진=인스타그램(thenoelabella)

시카고 출신인 맥마허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 여성'이다. 맥마허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디 맥마허(35)는 "아이가 3살이 되기 전부터 자기는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누군가 '남자에 귀엽네' 라고 하면 '남자에 아니고 여자에' 라고 답할 정도였다." 고 밝혔다.

맥마허의 어머니도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나, 성 정체성은 남성인 '트랜스남성'이다. 맥마허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이혼 후 현재는 역시 '트랜스남성'인 배우자와 결혼해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다만 어머니는 누구도 맥마허에게 성전환을 강요한

물론 지금의 맥마허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히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면서 가족이 해체됐다. 맥마허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맥마허에 대해선 내게 발언권이 없다. 더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다만 "모델로 활동하며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너무 공개하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고 우려를 드러냈다.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맥마허의 어머니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 옷을 입지 않았고, 여자아이처럼 행동했다. 결국 성별클리닉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자신의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아이가 비로소 안정됐다."면서 "아이는 4살 때 '사회적 전환'을 마쳤고, 6살 때 아이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고 전했다.

'생얼'로 미인대회 결승 진출한 여성



▲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로 미인대회 결선에 오른 멜리사 라우프(왼쪽), 평소 화장한 멜리사(오른쪽). 사진=bestofnews.com/페이스북(MelisaRaouf)

미인대회에 출전한 영국의 한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로 결선에 진출해 관심을 모았다.

런던 출신의 대학생 멜리사 라우프(20)는 지난 22일 열린 미스 잉글랜드 준결승에서 화장하지 않은 일명 '생얼'로 출전했다.

미스 잉글랜드 대회 측은 "1928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출전한 도전자가 결선에 오른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라우프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으며, 얼굴은 피부색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맨얼굴로 무대에 섰다.

라우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도전하기 위해 맨얼굴로 출전을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이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결정은 내게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느낀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 피부가 아름답다고 느꼈고, 메이크업 없이 경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미스 잉글랜드 대회 주최 측은 "메이크업 없이 준결승에 도전한 참가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모든 참가자들도 힘을 얻었다."면서 "2022년 미스 잉글랜드 대회에서 멜리사에게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라우프는 오는 10월 열리는 결선 무대에서도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로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강물에 호박 보트 띄우고 60km 여행한 남성

한 미국인이 '호박 보트'를 타고 무려 60km를 여행했다.

지난 25일 네브래스카주 벨뷰시 보트 선착장에 거대 호박 보트가 등장했다. 속을 파낸 호박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 딱 좋은 크기였다.

아침 7시 30분, 호박보트에 몸을 실은 사람은 하루 전 60세 생일을 맞았던 남성 한센이었다. 그는 미주리강을 따라 남쪽으로 노를 저어 이날 저녁 61.15km 떨어진 네브래스카기 선착장에 도착했다. 벨뷰시 보트 선착장을 떠난 지 11시간 만이었다.

이로써 한센은 '호박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에 등극하게 됐다. 기네스 세계기록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2016년 노스다코타



▲ '호박 보트를 타고 무려 60km를 여행한 듀안 한센. 사진=페이스북(City of Bellevue, Nebraska)

주에서 미네소타주까지 호박 보트를 타고 41.03km를 이동한 릭 스웬슨이라는 미국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

한센은 이번 도전을 위해 '슈퍼 호박'을 재배하는데 무려 5년을 기다렸다. 한센은 "예전에 호박 재배 세미나에서 슈퍼호박으로 세계기록을 거머쥘 이룰 만했다. 나도 호박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 실패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마침내 무게 383kg, 둘레 3.7m 슈퍼호박을 키워낸 그는 호박보트를 타고 60km 넘게 항주했다. 한센은 "호박 보트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기네스 기록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권장)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Brookhurst St	Lampson Ave	Euclid
Yoon Chiropractic		
Garden Grove St		
22 Fwy		